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부모의 정서적 지원, 학업 스트레스, 학업 성취도의 종단적 관계*

강채현** · 장재홍***

본 연구는 부모의 정서적 지원, 학업 스트레스, 학업 성취도 간 종단적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 자료 중 6~8차 데이터를 사용하여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세 변인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부모의 정서적 지원과 학업 성취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였고, 학업 스트레스는 증가하였다. 부모의 초기 정서적 지원 수준이 높을수록 감소 폭이 더 크고, 초기 학업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완만했으며, 초기 학업 성취도가 높을수록 감소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세 변인의 종단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모의 정서적 지원-학업 스트레스 관계’에서 부모의 초기 정서적 지원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 스트레스 수준은 낮았고, 부모의 정서적 지원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학업 스트레스의 증가 속도가 완화되었다. ‘학업 스트레스-학업 성취도 관계’에서 학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초기 학업 성취도가 높았고,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학업 성취도의 변화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부모의 정서적 지원-학업 성취도 관계’에서 부모의 정서적 지원이 높을수록 초기 학업 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부모의 정서적 지원과 학업 성취도의 종단적 관계에서 학업 스트레스의 매개 경로를 분석한 결과, ‘부모의 정서적 지원 초기치 → 학업 스트레스 초기치 → 학업 성취도 초기치’ 경로에서만 유의한 매개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부모의 정서적 지원 확대와 학업 스트레스 의미의 확대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부모의 정서적 지원, 학업 스트레스, 학업 성취도,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논문 투고일 : 2026. 08. 04.

최종심사일 : 2026. 09. 09.

게재확정일 : 2026. 09. 18.

* 이 논문은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 6차(2018)~8차(2020) 데이터를 활용함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석사

*** 충북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Corresponding author : Jang, Jaehong, 1, Chungdae-ro, Seowon-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E-Mail: onowend@cbnu.ac.kr

I. 서론

학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입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학생들은 상당한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13세부터 18세 학생 중 공부를 가장 큰 고민으로 꼽은 비율은 46.5%였으며(통계청·여성가족부, 2021), 최근에도 청소년의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은 공부와 학업성적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5). 또한 유엔아동기금(UNICEF) 관련 조사에서 한국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 점을 고려하면(한겨레, 2015),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학업 스트레스 문제는 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이는 한국 학생들의 지속적인 특징이자 문제로 여겨진다.

극심한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는 학업 동기와 성취, 자신감을 저하시키고, 학생들은 학교 성적과 입시 스트레스로 인해 높은 부담을 느낄 수 있다(류다현·김규리, 2025). 학업 스트레스는 학업 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구경호·김석우, 2014; 정주영, 2010), 낮아진 학업 성취도로 인해 다시 학업 스트레스가 높아짐으로써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학업 스트레스가 학업 성취도에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하였다. 예컨대,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 성취도 간 정적 상관관계 및 부적 상관관계가 혼재되어 나타나기도 하였고(오희정·김갑성, 2020), 적당한 수준의 스트레스는 학습과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상효경·이용남, 2012).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 성취도는 일회적이지 않고, 시간에 따라 누적되거나 변화할 수 있는 요인이다. 더욱이 청소년기는 입시 부담과 진학, 급격한 정서 변화, 자아 정체성 혼란 등으로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시기이므로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 성취도의 관계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도 중요해졌고, 그중 부모-자녀의 관계나 부모의 정서적 지원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사회적 시선과 영향에 민감한 청소년기 학생들에게는 부모가 자신을 믿고 지원한다고 인식하는 것이 생활과 학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유정·원성준, 2021; 함은혜·박빛나·유진은·권순보, 2020). 이러한 부모의 지원은 학생의 성취동기를 높이고, 자기조절학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신지연·권순구·봉미미, 2016). 특히, 부모의 정서적 지원은 학생들이 느끼는 불안의 정도를 낮추며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황혜

연·이선영·권순구·봉미미, 2016; Song, Bong, Lee, & Kim, 2015). 이처럼 부모와 자녀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는 학업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지만, 오히려 부모의 지나친 관심과 기대는 학업 스트레스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황여정, 2008).

기존 연구들은 부모의 정서적 지원이 학업 스트레스를 낮추고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연구가 많았으나, 실제로는 그 효과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부모의 정서적 지원은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지만, 반대로 과도한 관심이나 장기적이고 불균형적인 정서적 지원은 학업 부담으로 이어져 학업 스트레스를 심화시킬 수 있다. 특히, 입시 경쟁과 학업 부담이 높은 우리 사회에서 부모의 정서적 지원은 학생들에게 늘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 즉, 부모의 정서적 지원이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부담이라는 이중적 측면으로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 성취도에 연결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부모의 정서적 지원과 학업 스트레스, 학업 성취도 간 관계를 횡단적으로 살펴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종단적인 접근을 통해 세 변인과 변인 간 관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교육수준, 가구소득, 사교육비와 같은 사회경제적 배경 변인을 공변인으로 설정함으로써 어떤 조건에서 부모의 정서적 지원이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 성취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학부모의 정서적 지원이 어떻게 학업 스트레스 및 학업 성취도와 맞물려 변화하는지를 구조적으로 규명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정서적 지원, 학업 스트레스, 학업 성취도가 어떤 관계를 갖는지 종단적으로 분석함에 있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정서적 지원이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때, 학업 스트레스가 매개 효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부모의 정서적 지원과 학업 성취도 간 종단적 관계와 그 과정에서 학업 스트레스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탐색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부모의 정서적 지원을 확대하고 학업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교육적 개입과 프로그램 개발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시간의 경과에 따라 부모의 정서적 지원, 학업 스트레스, 학업 성취도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연구문제 2. 부모의 정서적 지원, 학업 스트레스, 학업 성취도의 종단적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학업 스트레스는 부모의 정서적 지원과 학업 성취도의 종단적 관계에서 매개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부모의 정서적 지원

부모의 정서적 지원이란 생활 전반의 정서적인 측면에서 자녀를 지지하며(함은혜 외, 2020), 자녀의 상황과 감정에 공감하거나 적절한 애정과 격려 등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모의 행동을 의미한다(황혜연 외, 2016; Skinner, Johnson, & Snyder, 2005). 이러한 부모의 정서적 지원과 애착은 근본적이고 중요한 사회적 지지 자원으로서 자녀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유명진·손강숙, 2015; 정은미, 2018).

부모의 지원은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소연희, 2008; 신지연 외, 2016), 특히 부모가 자녀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줄 때 자녀의 학업성취를 증진시키고 자녀는 자신에 대한 기대 수준을 높일 수 있다(김은정, 2007). 그러나 부모의 지원과 관심이 자녀에게 늘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 부모의 과도한 압력과 지원은 역기능으로 작용하여 오히려 학업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Campbell & Mandel, 1990), 이는 자녀의 학업 스트레스를 심화시킬 수 있다(Kim & Lee, 2013). 한국 사회 풍토에서 자녀의 학업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기대는 높을 수 있으며, 부모로부터 받는 교육적 관심은 자녀에게 학업성취 압력으로 지각될 수 있다(선혜연·오정희, 2013). 이처럼 부모의 정서적 지원은 자녀가 부모의 지원에 공감하여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반대로 자녀에게 불안을 일으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함은혜 외, 2020). 즉, 부모의 정서적 지원이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볼 수 있지만, 이를 자녀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2. 학업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는 학업과 관련된 성적, 시험, 공부 등으로 인해 긴장하거나 불안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한다(이근영·최수찬·공정석, 2011; 이후연·조영채, 2018). 학업은 청소년기 학생들과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현실적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이자 진로를 결정하는 핵심변인으로 작용한다(황여정, 2008). 특히, 우리나라는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경쟁에

대한 부담과 압박이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이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정주영, 2010). 이는 우울이나 분노 등의 부정적인 정서와 비행이나 자살 등의 다양한 심리적·사회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오정희·선헌연, 2013; 허미경·도미향, 2025).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는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김민정, 2025; 양애경·조호제, 2009; Akgun & Ciarrochi, 2003). 그러나, 상호경과 이용남(2012)은 학업 스트레스가 높거나 낮으면 학업 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적절한 스트레스는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스트레스가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학생들이 이를 어떻게 지각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처 양식과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김지숙·류상희, 2003).

3. 학업 성취도

학업성취는 학습자의 사고방식을 나타내는 인지적 특성, 행동방식을 나타내는 운동적 특성, 감정 방식을 나타내는 정의적 특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학업 성취도는 학교 교육을 통해 얻은 결과를 총칭하는 개념이다(양애경·조호제, 2009). 학교 과정을 통해 습득된 지식, 태도, 가치관 등 학습의 결과이며, 학업 성취도는 학교를 넘어 가정과 사회의 연결된 관계에서 결정된다(정주영, 2010). 대표적인 예로 국가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생의 교육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들 수 있다(김양분·김난옥, 2015). 학업성취는 직업과 진로 선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얻는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로 여겨진다(염연옥·추상엽·임성문, 2007). 이러한 학업 성취도는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원인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누적된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학업성취에 대한 변화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종단적 접근이 적합할 수 있다(이유미·박병기, 2019).

학업 성취도가 갖는 의미가 확대되면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도 활발히 연구되어왔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적 요인, 가족적 요인, 학교 요인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성별(김지영·서영숙, 2011; 박경미·최승현, 2002)이나 학습자의 특성 등이 제시될 수 있고(김양분·김난옥, 2015), 가족 관련 요인으로는 부모의 학력(김경근·연보라·장희원, 2014), 사회경제적 자본(정익중·권은선·박현선, 2011; Duncan & Brooks-Gunn, 2000) 등이 존재하며, 학교 관련 요인으로는 학교 평균 사회경제적 지위(김경근 외, 2014; 한희진·양정호, 2011)나 학교의 교육 분위기(김위정, 2012;

Montt, 2011) 등이 있을 수 있다.

4. 부모의 정서적 지원, 학업 스트레스, 학업 성취도 간 관계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세 변인과 유사한 개념들을 다룬 연구들을 통해 그 관계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부모의 학업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 공존 변화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성취 차이를 확인한 연구(이유정·원성준, 2021)에서는 부모의 학업적·정서적 지원이 모두 높은 집단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학업 스트레스와 높은 수준의 학업성취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교사, 또래와의 관계 유형에 따라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 성취도 차이를 확인한 연구(이운경·김민주, 2019)도 존재했는데, 부모, 교사, 또래 모두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때 학업 스트레스가 낮고 학업 성취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앞선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정서적 지원, 학업 스트레스, 학업 성취도 변인 간 관계를 다루었으나, 학업 스트레스가 매개 변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한편, 이의빈과 김진원(2022)은 본 연구의 변인 및 구조와 비슷하게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생의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서 학업 스트레스의 매개 효과를 탐색하였다. 부모의 성취압력은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학업 스트레스를 증가시킴으로써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이 지각한 부모 변인과 학생 변인 관계에서 학업 스트레스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학업 스트레스의 매개적 기능과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교육종단연구(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이하 KELS) 2013 자료

를 활용하였고, 6차(2018년)부터 8차(2020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시기는 조사 대상자가 고등학생이며, 모든 변인이 수집된 시기이므로 KELS 2013의 6~8차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KELS 2013의 최초 패널은 7,324명이며, 이 중 6·7·8차 부모의 정서적 지원, 학업 스트레스 및 학업 성취도 합성점수가 모두 확보된 4,560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 표본에서 세 시점의 주요 변인 합성점수 결측률은 모두 0%였다. 이후 통제변수 중 하나 이상에 결측이 있는 727명(15.94%)을 제외하여,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최종 분석 표본은 3,833명이었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정서적 지원이며, 총 3문항으로 측정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정서적 지원을 높게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개 시점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를 확인한 결과 .91 ~ .9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매개변수는 학업 스트레스이며, 총 4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측정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3개 시점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6 ~ .78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학업 성취도이며, 전국학력평가의 과목별(국어, 수학, 영어) 등급을 ‘1등급(1)’부터 ‘9등급(9)’까지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래 등급이 낮을수록 학업 성취도가 높음을 의미하지만, 본 변수는 학업 성취도를 나타내므로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성취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학업 성취도에 대한 3개 시점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6 ~ .98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통제변수로 학생의 성별, 부모의 교육수준(남자 보호자, 여자 보호자), 가구소득, 사교육비를 투입하였다. 학생의 성별에 따라 학업 성취도가 달라질 수 있고(김현경, 2013; 임슬기·이수형, 2019), 부모의 교육수준은 교육적 기회와 성취에 영향을 미치며(방하남·김기현, 2002),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의 투자나 사회자본의 전수가 용이하여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김선숙·고미선, 2007; 방하남·김기현, 2003).

학생의 성별은 변하지 않는 변수이므로 KELS 2013 1차(2013년) 자료를 활용하였고, 부모의 교육수준도 변하지 않는 변수이므로 해당 변수를 측정한 KELS 2013 2차(2014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가구소득과 사교육비는 KELS 2013 자료 중 6차(2018년)~8차(2020년) 자료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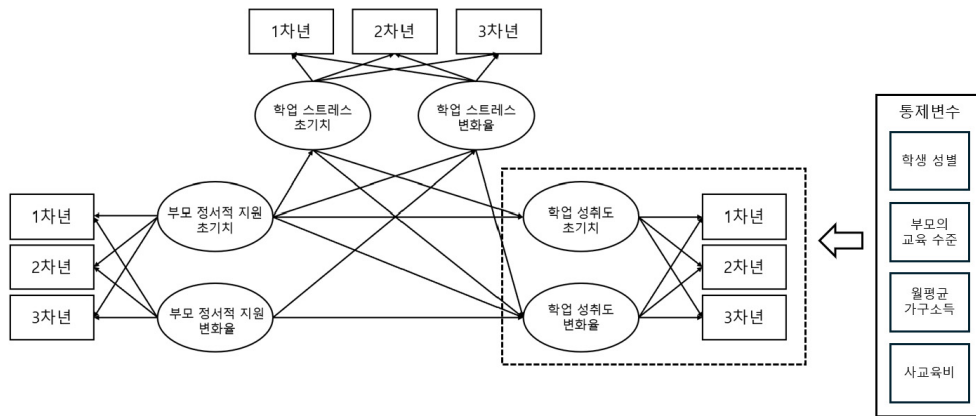
활용하였다. 부모의 교육수준(남자 보호자, 여자 보호자)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α)는 .79, 가구소득에 대한 3개 시점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0, 사교육비에 대한 3개 시점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4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각 변인의 전반적인 수준을 요약하고 시점 간 변화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문항 평균을 합성점수로 사용하였으며, 각 시점의 내적 일관성을 신뢰도 계수로 확인하였다. 다만 합성점수는 개별 문항의 측정오차를 별도로 모형화하지 않으며, 문항 수준의 종단 측정동일성을 검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시점 간 점수 변화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변수와 문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변인 구성

구분	요인	문항 내용	척도	시점
독립 변수	부모의 정서적 지원	나를 격려하신다	5점 척도	6~8차
		내 기분을 맞추어 주신다		
		나를 이해해 주신다		
종속 변수	학업 성취도	20**년 *월 *일에 시행된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하였습니까? (응시함) 과목별 등급 선택	1 (1등급) ~ 9 (9등급)	6~8차
매개 변수	학업 스트레스	부모(보호자)님의 공부하라는 소리에 짜증이 난다	5점 척도	6~8차
		공부가 잘 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공부 생각만 하면 소화가 잘 안된다		
		앞으로 공부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삶의 의욕이 떨어진다		
통제 변수	학생 성별	남, 여	범주형	1차
	부모 (보호자) 의 교육 수준	1) 초등학교 졸업 이하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4) 2/3년제 대학 졸업 5) 4년제 대학 졸업(석사과정 수료 포함) 6)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박사과정 수료 포함) 7)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 8) 안 계심		2차
	월평균 가구소득	올해 가정의 월 평균 총 가구소득(급여, 상여금, 재산소득, 생활보조금 등 포함)은 얼마입니까?	단답형	6~8차
	사교육비	(설문지를 가져 온) 자녀는 올해 사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6~8차
		(설문지를 가져 온) 자녀의 월 평균 총 사교육비는 얼마입니까?	단답형	6~8차

3. 연구모형

부모의 정서적 지원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에서 부모의 정서적 지원은 독립변수로, 학업 스트레스는 매개변수로, 학업 성취도는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부모의 정서적 지원이 학업 성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도 함께 고려하였다. 아울러 성별, 부모의 교육수준, 가구소득, 사교육비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배경 요인의 영향을 통제하였다. 본 연구에서 KELS 2013의 6차 자료를 ‘1차년도’, 7차 자료를 ‘2차년도’, 8차 자료를 ‘3차년도’로 정하였고, 이에 따른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4. 분석 방법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3차년도에 걸쳐 수집된 종단 자료를 활용하였다. 먼저 주요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를 산출하여 전반적인 분포와 변인 간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이후 잠재성장모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째, 각 변인에 대해 무변화 모형과 선형변화모형을 비교하여 시간에 따른 변화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였다. 무변화 모형은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는 모형이며, 선형변화모형은 0-1-2와 같은 선형 계수를 부여하여 변인의 평균적인 변화 궤적을 추정한다. 본 연구는 세 변인이 공통

으로 측정된 고등학교 3개년 자료를 활용하여 해당 기간의 전반적인 변화 추세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에 무변화 모형과 선형변화모형을 비교하였으며, 세 시점이라는 관측 범위의 제약으로 비선형 변화 양상은 검토하지 않았다. 둘째, 부모의 정서적 지원, 학업 스트레스, 학업 성취도를 통합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부모의 정서적 지원의 초기치와 변화율이 학업 스트레스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으며, 나아가 학업 스트레스의 초기치와 변화율이 학업 성취도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검증하였다. 셋째, 성별, 부모의 교육수준, 가구소득, 사교육비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학업 성취도의 초기치와 변화율을 보정하였다. 이를 통해 부모의 정서적 지원과 학업 스트레스가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관계가 배경 요인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하였다. 넷째, 부모의 정서적 지원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과정에서 학업 스트레스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기법을 적용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간접효과의 표집 분포를 추정하고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여,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 효과가 있음을 판단하였다(MacKinnon, 2008).

자료 분석에는 Mplus 8.3을 사용하였다.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은 통제변수 결측 사례를 제외한 후 분석변수에 결측이 없는 3,833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최대우도법(ML)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KELS의 복합표본 설계에 따른 층화·군집 및 표본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았다.

IV. 연구결과

1. 시간의 경과에 따른 부모의 정서적 지원, 학업 스트레스, 학업 성취도 변화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인 <표 2>를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부모의 정서적

지원은 3개 시점 모두 평균 약 4점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나타났으며, 매개변수인 학업 스트레스는 약 2.8점대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종속변수인 학업 성취도는 1차년도 평균 5.34점에서 3차년도 5.15점으로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통제변수의 경우, 남자 보호자의 교육수준 평균은 4.19점, 여자 보호자의 교육수준 평균은 3.93점이었으며, 이는 각각 2~3년제 대학 졸업(4점)수준에 해당한다. 또한, 월평균 가구소득은 약 586만 원, 월평균 사교육비는 약 65만 원으로 나타났다.

<표 2> 기술통계

구분	변인	시기	평균	표준편차
독립 변수	부모의 정서적 지원	1차년도 (고1)	4.01	0.87
		2차년도 (고2)	3.94	0.88
		3차년도 (고3)	3.95	0.87
매개 변수	학업 스트레스	1차년도 (고1)	2.84	0.96
		2차년도 (고2)	2.88	0.96
		3차년도 (고3)	2.91	0.96
종속 변수	학업성취도	1차년도 (고1)	5.34	1.75
		2차년도 (고2)	5.32	1.71
		3차년도 (고3)	5.15	1.72
통제 변수	학생 성별	-	-	-
	부모의 교육수준 (남자 보호자)	2차년도	4.19	1.09
	부모의 교육수준 (여자 보호자)		3.93	0.98
	월평균 가구소득 (만원)	1~3차년도	585.73	444.67
	월평균 사교육비 (만원)	1~3차년도	64.84	44.16

상관분석 결과(<표 3> 참조), 부모의 정서적 지원은 세 시점 모두에서 높은 정적 상관($r=.554\sim.614$, $p<.01$)을 보여 시간이 지나도 일관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정서적 지원은 학업 스트레스와 부적 상관($r=-.170\sim-.262$, $p<.01$)을 보여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가 낮아지는 부적 상관의 경향을 보였다. 반대로 부모의 정서적 지원은 학업 성취도와 정적 상관($r=.088\sim.141$, $p<.01$)을 보여 부모의 관심과 격려가 학생들의 학업성취 향상과 정적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업 스트레스 역시 1~3차년도 간 높은 정적 상관($r=.532\sim.641$, $p<.01$)을 보였으며,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 성취도 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r=.066\sim.161$, $p<.01$)이 나타나 일정 수준의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 성취도 간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학업 성취도는 1~3차년도 간 매우 높은 상관($r=.855\sim.893$, $p<.01$)을 보였으며, 성별과는

낮은 상관을 보인 반면, 부모 학력($r=.361 \sim .376$, $p<.01$), 가구소득($r=.228 \sim .230$, $p<.01$), 사교육비($r=.290 \sim .301$, $p<.01$)는 모두 학업 성취도와 정적 상관을 보여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생의 성취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상관분석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1차년도 (고1) 부모 정서 지원 평균	1	.587**	.554**	-.262**	-.184**	-.170**	.134**	.141**	.127**	-.055**	.054**	.048**	.047**	.036*
2. 2차년도 (고2) 부모 정서 지원 평균		1	.614**	-.206**	-.230**	-.195**	.112**	.126**	.114**	-.044**	.046**	0.015	0.023	0.029
3. 3차년도 (고3) 부모 정서 지원 평균			1	-.211**	-.197**	-.240**	.088**	.094**	.091**	-.041**	0.021	0.003	.030*	0.006
4. 1차년도 (고1) 학업 스트레스 평균				1	.596**	.532**	.080**	.066**	.070**	.189**	.048**	.045**	0.021	.040*
5. 2차년도 (고2) 학업 스트레스 평균					1	.641**	.128**	.135**	.139**	.226**	.064**	.057**	0.021	.050**
6. 3차년도 (고3) 학업 스트레스 평균						1	.150**	.149**	.161**	.219**	.059**	.048**	0.016	.049**
7. 1차년도 (고1) 학업 성취도 평균							1	.890**	.855**	.033*	.376**	.374**	.228**	.301**
8. 2차년도 (고2) 학업 성취도 평균								1	.893**	.052**	.371**	.372**	.228**	.290**
9. 3차년도 (고3) 학업 성취도 평균									1	.046**	.361**	.362**	.230**	.301**
10. 학생 성별										1	-.046**	-0.016	-0.02	-0.028
11. 부모 교육수준 (남자 보호자)											1	.652**	.279**	.290**
12. 부모 교육수준 (여자 보호자)												1	.268**	.305**
13. 1~3차년도 가구소득 평균													1	.414**
14. 1~3차년도 사교육비 평균														1

* $p<.05$, ** $p<.01$

2) 부모의 정서적 지원, 학업 스트레스, 학업 성취도의 잠재성장모형 분석

잠재성장모형 분석에서는 우선 각 변인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무변화 모형과 선형변화모형을 비교한다. 변인들의 무변화 모형과 선형변화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비교한 결과, 모든 변인에서 선형변화모형의 적합도가 무변화 모형보다 우수하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 정서적 지원, 학업 스트레스, 학업 성취도가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각기 뚜렷한 변화 양상을 보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 변인 모두 선형변화모형을 최종 분석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잠재성장모형 추정 결과는 <표 4>와 같다.

부모 정서적 지원의 초기값은 3.995로 나타났으며 분산은 0.485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이는 학생들 간 부모의 정서적 지원 수준의 출발점에서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평균 변화율은 -0.028로 유의한 음수 형태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모의 정서적 지원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변화율 분산이 0.041로 유의하게 추정되어 학생마다 감소 속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초기값과 변화율 간 공분산은 -0.032로 나타났으며, 이는 초기 부모 정서적 지원이 높을수록 이후 감소 폭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업 스트레스의 경우 초기값은 2.841로 추정되었고 분산은 0.606으로 나타나 학생 간 초기 수준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는 학생마다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정도가 출발 시점부터 달랐음을 의미한다. 평균 변화율은 0.033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업 스트레스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율 분산은 0.080으로 나타나 학생마다 스트레스 증가 속도가 다를 수 있었다. 초기값과 변화율 간 공분산은 -0.058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초기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학생일수록 이후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완만함을 의미한다.

학업 성취도의 초기값은 5.370으로 추정되었고 분산은 2.746으로 나타나 출발점에서 성취도의 개인차가 매우 크게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이는 어떤 학생들은 처음부터 높은 성취를 보인 반면, 다른 학생들은 낮은 수준에서 출발했음을 의미한다. 평균 변화율은 -0.099로 유의하게 음수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업 성취도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변화율 분산은 0.065로 나타나 학생마다 성취도 감소 속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초기값과 변화율 간 공분산은 -0.088로 나타났으며, 이는 초기 성취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이후 성취도의 감소 폭이 더 크다는 것을 말한다.

<표 4> 무변화 및 선형변화 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

	모형	χ^2	df	CFI	TLI	RMSEA	초기값 평균	초기값 분산	변화율 평균	변화율 분산	공분산
부모 정서적 지원	무변화	63.82	4	.987	.990	.057	3.964***	.449***	-	-	-.032**
	선형변화	18.14	1	.996	.989	.061	3.995***	.485***	-.028***	.041***	
학업 스트레스	무변화	96.54	4	.980	.985	.071	2.876***	.551***	-	-	-.058***
	선형변화	0.21	1	1.000	1.001	.000	2.841***	.606***	.033***	.080***	

학업 성취도	무변화	271.36	4	.982	.987	.121	5.281***	2.633***	-	-	-.088***
	선형변화	50.59	1	.997	.990	.104	5.370***	2.746***	-.099***	.065***	

* $p<.05$, ** $p<.01$, *** $p<.001$

2. 부모의 정서적 지원, 학업 스트레스, 학업 성취도의 종단적 관계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chi^2=456.822$, $df=54$, $RMSEA=0.044$, $CFI=0.981$, $TLI=0.972$, $SRMR=0.043$)는 권장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이에 따라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이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첫째, 부모의 정서적 지원과 학업 스트레스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 정서적 지원 초기치는 학업 스트레스 초기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B=-0.460$, $p<.001$), 부모의 지원 수준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정서적 지원이 학생의 정서적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함을 의미한다. 또한, 부모 정서적 지원 초기치는 학업 스트레스 변화율에 정적 영향을 주어($B=0.051$, $p<.01$), 부모 지원이 높은 학생일수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업 스트레스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부모 정서적 지원 변화율은 학업 스트레스 변화율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B=-0.794$, $p<.01$), 부모의 지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학업 스트레스의 증가 속도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정서적 지원이 학생들의 스트레스 수준을 낮출 뿐 아니라, 스트레스의 변화 추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 성취도 관계를 살펴보면, 학업 스트레스 초기치는 학업 성취도 초기치에 정적 영향을 미쳐($B=0.266$, $p<.001$),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초기 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 스트레스 변화율은 학업 성취도 초기치에 정적 영향을 주어($B=0.934$, $p<.05$),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학생일수록 초기 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아울러 학업 스트레스 변화율은 학업성취도 변화율에도 정적 영향을 미쳐($B=0.396$, $p<.05$),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학생일수록 학업 성취도의 변화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부모의 정서적 지원과 학업 성취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 정서적 지원 초기치는 학업 성취도 초기치에 정적 영향을 미쳐($B=0.352$, $p<.001$), 부모의 지원이 높을수록 학생의 초기 성취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부모 정서적 지원 변

화율은 학업 성취도 변화율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향을 보였다($B=0.461$, $p=.088$). 이는 부모의 지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할수록 학생의 성취 향상 변화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부모의 지원이 초기 학업 성취도 수준뿐만 아니라 향상 추세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사회경제적 배경(SES)의 영향력을 보면, 부모의 교육수준(아버지: $B=0.276$, $p<.001$; 어머니: $B=0.282$, $p<.001$), 가구소득($B=0.000$, $p<.01$), 사교육비($B=0.006$, $p<.001$)는 모두 학업 성취도 초기치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즉, 부모의 학력과 가정의 경제적 자원이 높을수록 학생의 초기 성취도가 높았다. 그러나 학업 성취도 변화율에 대해서는 SES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성취도 변화율에 부적인 방향($B=-0.016$, $p=.083$)을 보였으나,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경로계수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계수 (B)	표준화계수 (β)	표준오차 (SE)	t값	p
부모 정서적 지원 초기치 → 학업 스트레스 초기치	-0.460***	-0.421	0.028	-16.458	0.000
부모 정서적 지원 초기치 → 학업 스트레스 변화율	0.051**	0.147	0.016	3.121	0.002
부모 정서적 지원 변화율 → 학업 스트레스 초기치	0.432	0.107	0.326	1.326	0.185
부모 정서적 지원 변화율 → 학업 스트레스 변화율	-0.794**	-0.611	0.279	-2.849	0.004
학업 스트레스 초기치 → 학업 성취도 초기치	0.266***	0.125	0.054	4.896	0.000
학업 스트레스 초기치 → 학업 성취도 변화율	-0.024	-0.064	0.016	-1.469	0.142
학업 스트레스 변화율 → 학업 성취도 초기치	0.934*	0.141	0.456	2.047	0.041
학업 스트레스 변화율 → 학업 성취도 변화율	0.396*	0.335	0.156	2.541	0.011
부모 정서적 지원 초기치 → 학업 성취도 초기치	0.352***	0.152	0.064	5.467	0.000
부모 정서적 지원 초기치 → 학업 성취도 변화율	-0.029	-0.069	0.022	-1.328	0.184
부모 정서적 지원 변화율 → 학업 성취도 초기치	0.057	0.007	0.594	0.096	0.923
부모 정서적 지원 변화율 → 학업 성취도 변화율	0.461	0.300	0.271	1.704	0.088

경로	비표준화계수 (B)	표준화계수 (β)	표준오차 (SE)	t값	p
학생 성별 → 학업 성취도 초기치	0.063	0.020	0.049	1.284	0.199
학생 성별 → 학업 성취도 변화율	0.021	0.038	0.016	1.378	0.168
부모 교육수준(아버지) → 학업 성취도 초기치	0.276***	0.190	0.029	9.435	0.000
부모 교육수준(아버지) → 학업 성취도 변화율	-0.016	-0.062	0.009	-1.734	0.083
부모 교육수준(어머니) → 학업 성취도 초기치	0.282***	0.175	0.032	8.692	0.000
부모 교육수준(어머니) → 학업 성취도 변화율	-0.002	-0.005	0.010	-0.150	0.881
가구소득 평균 → 학업 성취도 초기치	0.000**	0.046	0.000	2.708	0.007
가구소득 평균 → 학업 성취도 변화율	0.000	0.036	0.000	1.204	0.228
사교육비 평균 → 학업 성취도 초기치	0.006***	0.175	0.001	10.199	0.000
사교육비 평균 → 학업 성취도 변화율	0.000	0.004	0.000	0.127	0.899

* $p < .05$, ** $p < .01$, *** $p < .001$

3. 부모의 정서적 지원과 학업 성취도의 종단적 관계에서 학업 스트레스의 종단적 매개 효과

부모의 정서적 지원과 학업 성취도 간 관계에서 학업 스트레스의 종단적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적용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은 매개 효과의 표집 분포를 추정하여 95% 신뢰구간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해당 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한다(Shrout & Bolger, 2002). 분석 결과(<표 6> 참조), 부모 정서적 지원 초기치 → 학업 스트레스 초기치 → 학업 성취도 초기치 경로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 효과가 나타나($B = -0.122$, $SE = 0.034$, $p < .001$, 95% CI [-0.196, -0.068]) 초기 수준 간의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즉, 부모의 초기 정서적 지원이 높을수록 학업 스트레스 초기 수준이 낮아지고, 그 결과 학업성취 초기 수준이 높아지는 간접효과가 존재하였다. 반면, 다른 종단 매개 경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6> 학업 스트레스의 종단 매개 효과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비표준화계수 (B)	표준오차 (SE)	p	95% CI (LB - UB)
부모 정서적 지원 초기치	→ 학업 스트레스 초기치	→ 학업 성취도 초기치	-0.122*	0.034	<.001	[-0.196, -0.068]
부모 정서적 지원 초기치	→ 학업 스트레스 변화율	→ 학업 성취도 초기치	0.048	0.103	.640	[-0.017, 0.155]
부모 정서적 지원 변화율	→ 학업 스트레스 초기치	→ 학업 성취도 초기치	0.115	0.196	.556	[-0.018, 0.694]
부모 정서적 지원 변화율	→ 학업 스트레스 변화율	→ 학업 성취도 초기치	-0.741	2.538	.770	[-3.540, 0.143]
부모 정서적 지원 초기치	→ 학업 스트레스 초기치	→ 학업 성취도 변화율	0.011	0.008	.185	[-0.004, 0.029]
부모 정서적 지원 초기치	→ 학업 스트레스 변화율	→ 학업 성취도 변화율	0.020	0.045	.654	[-0.004, 0.128]
부모 정서적 지원 변화율	→ 학업 스트레스 초기치	→ 학업 성취도 변화율	-0.010	0.027	.701	[-0.113, 0.002]
부모 정서적 지원 변화율	→ 학업 스트레스 변화율	→ 학업 성취도 변화율	-0.314	1.445	.828	[-3.572, 0.078]

* $p < .001$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모의 정서적 지원, 학업 스트레스, 학업 성취도 간 종단적 관계를 분석하고, 부모의 정서적 지원과 학업 성취도의 관계에서 학업 스트레스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와 그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정서적 지원과 학업 성취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학업 스트레스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학생마다 부모의 정서적 지원에 대한 출발점 수준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감소 속도에 차이가 있었으며, 초기 부모의 정서적 지원이 높을수록 감소 폭이 더 큰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의 정서적 지원이 감소한다는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이선영·송주연, 2017; 이유정·원성준,

2021). 학업 스트레스에서도 학생마다 초기 수준과 증가 속도가 달랐고, 초기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이후에 증가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이 지날수록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하며, 학업 스트레스가 높은 학생이 상대적으로 학업 스트레스가 완만하게 증가하였다는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이유미·박병기, 2019)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업 성취도는 출발점에서부터 개인차가 매우 크게 존재했으며, 감소 속도에 차이가 있었고, 초기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감소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부모의 정서적 지원과 학업 성취도는 감소하였고, 학업 스트레스는 증가하였다.

둘째, 부모의 정서적 지원, 학업 스트레스, 학업 성취도 간 종단적 관계에서 일부 요인 간에 유의한 예측 관계가 나타났다. 부모의 정서적 지원과 학업 스트레스 간 관계를 살펴보면, 초기에 부모의 정서적 지원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 스트레스 수준은 낮았고, 초기 지원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학업 스트레스가 다소 증가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의 정서적 지원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 증가 속도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정서적 지원과 지지가 학업 스트레스를 완화한다는 선행연구(김대웅·박하연·이강이, 2022; Zimmer-Gembeck, Skinner, Scott, Ryan, Hawes, Gardner, & Duffy, 2023)와 맥락을 같이 하지만, 반대로 부모와의 밀접한 관계가 학업적 성공에 대한 압력으로 이어져 학업 스트레스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선행연구(봉미미·김혜연·이수현·이화숙·신지연, 2008; Kim & Lee, 2013)와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 성취도 간 관계에서는 초기에 학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초기 학업 성취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당한 스트레스가 활력소로 작용하여 문제 인식과 수행능력을 증진할 수 있다는 연구(이유미·박병기, 2019)와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학생일수록 학업 성취도의 변화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의 정서적 지원과 학업 성취도 간 관계에서는 초기 정서적 지원이 높으면 초기 학업 성취도가 높았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정서적 지원이 증가할수록 학업 성취도 향상 속도도 높아질 가능성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정서적 지원이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신지연 외, 2016)는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통제 변수로 제시하였던 사회경제적 배경 변인과 관련하여 부모의 교육수준과 가구소득, 사교육비가 높을수록 학생의 초기 학업성취가 높았다. 그러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요컨대, 부모의 정서적 지원, 학업 스트레스, 학업 성취도는 변인 간 영향을 주고받는 종단적 관계임을 확인하였다.

셋째, 부모의 정서적 지원과 학업 성취도 간 종단적 관계에서 학업 스트레스의 매개 효과

는 일부 경로에서만 유의하였다. 부모의 초기 정서적 지원이 높을수록 학업 스트레스의 초기 수준이 낮아지고, 결국 학업 성취도의 초기 수준이 높아졌다. 즉, ‘부모의 정서적 지원 초기치 → 학업 스트레스 초기치 → 학업 성취도 초기치’ 경로에서 초기의 간접효과만 존재하였고, 다른 경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부모의 정서적 지원 초기치와 학업 성취도 초기치 관계에서 학업 스트레스 초기치는 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도출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정서적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의 방향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부모의 정서적 지원 증가가 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완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고려할 때, 부모의 지원이 학생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보호 요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최근 부모-자녀의 수평적 관계 변화나 질적 측면의 정서적 소통 확대 등으로 인하여 부모의 지원을 기대나 압력보다는 정서적 안정으로 인식되는 변화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부모는 질적 측면의 정서적 지원에 관심을 두고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Kim & Lee, 2013).

이렇듯 정서적 지원의 질이 중요하지만, 현재의 부모교육은 입시나 성적 관리 중심으로 치우쳐 있어 정작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서적 지원과 심리적 지지를 위한 교육은 부족한 상황이다. 부모가 자녀의 학습 과정에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부모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멘토링, 학습 공동체와 같은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의 부모교육은 일방적인 강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부모가 직접 참여하고 경험을 공유해볼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 구조는 학교나 교육청 차원에서 확대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지자체, 평생교육시설, 대학 등을 통해 지역사회 전반으로 구축해나갈 수 있다.

둘째, 학업 스트레스가 어떠한 맥락과 과정을 통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일정 수준의 학업 스트레스가 학업성취를 촉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업 스트레스는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인식될 것이 아니라 도전 의식과 성취동기를 강화하는 긍정적 요인으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학업 스트레스의 어떤 요소가 긍정적인 학습 동기로 작용할 수 있는지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학업 스트레스를 성적, 시험, 수업, 공부 요인으로 구분(상효경·이용남, 2012)하여 다루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이나 과정을 통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학업 스트레스의 특성에 따라 긍정적 긴장감과 심리적 부담 등으로 구분하여 학업 스트

레스의 이중적 역할을 체계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학업 스트레스가 긍정적 동기로 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학생들이 적정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며, 스스로 학업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와 부모는 결과보다 과정 중심의 피드백과 정서적 격려를 제공하도록 하며, 학업 스트레스가 심해질 경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많은 교육정책이 기초학력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실제로는 학업 수행이 양호한 학생들도 심리적 부담을 겪고 있음을 고려하며, 학업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을 균형 있게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학업 스트레스가 심각해지는 현 상황에서 부모의 정서적 지원, 학업 스트레스, 학업 성취도 간 종단적 관계를 알아보고, 부모의 정서적 지원과 학업 성취도 간 관계에서 학업 스트레스의 매개 효과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다만,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세 변인에만 초점을 두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인지·정서·사회적 요인을 포함한 다양한 변인을 추가하여 다층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KELS 2013 자료 중 고등학교 1~3학년 시기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므로, 향후 보다 장기적인 종단 자료를 통해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 성취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구경호·김석우(2014).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 학업탄력성과 학업성취 간의 구조적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8), 69-89.
- 김경근·연보라·장희원(2014). 서울시 중고등학생의 학업성취 영향요인 및 그 함의. **교육사회학연구**, 24(4), 1-29.
- 김대웅·박하연·이강이(2022). 부모의 학업지원과 정서지원이 고등학생의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과 내재적 동기의 조절효과. **인간발달연구**, 29(1), 21-41.
- 김민정(2025). 청소년 전환기 아동의 학업수행능력과 학업스트레스 간 관계에서 그릿의 조절효과. **부모교육연구**, 22(4), 201-219.
- 김선숙·고미선(2007). 청소년의 학업성취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한국청소년연구**, 18(3), 5-29.
- 김양분·김난옥(2015).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및 학교변인 탐색. **교육학연구**, 53(3), 31-60.
- 김위정(2012). 계층간 학력 격차의 변화: 학교정책의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2(3), 49-76.
- 김은정(2007).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사교육비, 부모-자녀 관계 그리고 청소년 자녀의 학업성취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부모-자녀 관계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1(5), 134-162.
- 김지숙·류상희(2003).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양식. **한국실과교육학회지**, 16(1), 105-117.
- 김지영·서영숙(2011). 학년별·성별에 따른 초등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진로발달 간 관계 비교 - 5, 6학년을 대상으로 -. **아동교육**, 20(3), 103-120.
- 김현경(2013).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과학과 학업성취도의 성별차이. **대한화학회지**, 57(1), 138-146.
- 류다현·김규리(2025). 고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에서 우울, 불안의 매개효과와 사회적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5(4), 255-272.
- 박경미·최승현(2002). 학업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PISA)에 나타난 수학적 소양의 성별 차이에 대한 고찰. **수학교육**, 41(3), 319-328.
- 방하남·김기현(2002). 기회와 불평등 : 고등교육 기회에 있어서 사회계층간 불평등의 분석. **한국사회학**, 36(4), 193-222.
- 방하남·김기현(2003). 한국사회의 교육계층화 : 연령코호트간 변화와 학력단계별 차이. **한국사회학**, 37(4), 31-65.
- 봉미미·김혜연·이수현·이화숙·신지연(2008). 한국 청소년의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4, 319-348.
- 상효경·이용남(2012). 학업성취도와 학업스트레스의 관계. **교육연구**, 35, 53-71.
- 선혜연·오정희(2013).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업스트레스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초등학생과 중학생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14(1), 197-212.
- 소연희(2008). 학교급별에 따른 지각된 사회적 지지,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성취동기 및 학업성취도와 의 관계: 경로모형을 중심으로. **아동교육**, 17(2), 49-64.
- 신지연·권순구·봉미미(2016). 부모의 지원, 성취압력과 초등학생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학습동기 변인

- 의 매개효과. **교육방법연구**, 28(3), 497-520.
- 양애경·조호제(2009). 중·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차이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9(1), 341-358.
- 염연옥·추상엽·임성문(2007). 가족구조가 고등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성취동기, 학업적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와 비관성의 조절효과. **청소년상담연구**, 15(2), 67-79.
- 오정희·선헌연(2013).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 관련 변인 연구: 성별 및 학교급, 지각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4(3), 1981-1994.
- 오희정·김갑성(2020). 학생의 시험 및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성취도 관계의 종단적 분석. **한국교육문제연구**, 38(2), 107-131.
- 유명진·손강숙(2015). 중학생의 대인관계와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에서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또래지지의 조절효과. **발달지원연구**, 4(2), 131-159.
- 이근영·최수찬·공정석(2011).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 우울감의 매개효과와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 **청소년학연구**, 18(5), 83-107.
- 이선영·송주연(2017). 부모의 학업적·정서적 지지와 진로 의식 성숙도의 관계에서 자아개념의 매개효과: 4년도에 걸친 종단 변화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8(4), 77-112.
- 이운경·김민주(2019).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부모,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유형: 정신건강, 학업스트레스, 학업동기 및 학업성취도와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40(3), 105-121.
- 이유미·박병기(2019). 경기지역 초기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의 종단적 관계 분석. **사고개발**, 15(2), 1-25.
- 이유정·원성준(2021). 부모의 학업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의 공존 변화에 따른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학업 성취에서의 차이 검증. **교육심리연구**, 35(4), 583-607.
- 이의빈·김진원(2022). 부모의 성취압력이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학업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69, 129-158.
- 이후연·조영채(2018). 여자고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 불안, 대인의존행동특성 및 절망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과모형의 검증.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9(1), 208-217.
- 임슬기·이수형(2019). 수학 성취도에서의 성별 격차: 동태적 변화와 원인 분석. **교육과정평가연구**, 22(2), 293-317.
- 정은미(2018). 부모애착이 자녀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모교육연구**, 15(1), 55-67.
- 정익중·권은선·박현선(2011). 아동의 학업성취 발달케적의 예측요인과 발달산물. **한국아동복지학**, 34, 63-93.
- 정주영(2010).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구조적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16(1), 129-152.
- 통계청·여성가족부(2021). 2021 청소년 통계. 통계청.
- 한겨레(2015, 3월 11일). “우리나라 아동들, 학업으로 받는 스트레스 세계 최고”. 한겨레신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81737.html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25). **2025 청소년상담이슈페이퍼 1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한희진·양정호(2011). 교사공동체가 중학생의 수학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28(4), 117-140.

- 함은혜·박빛나·유진은·권순보(2020). 부모-자녀간의 부모 지원에 대한 인식차가 학업성취 및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잠재성장모형 분석. **교육학연구**, 58(1), 33-60.
- 허미경·도미향(2025). 부모의 양육방식이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부모교육연구**, 22(1), 87-109.
- 황여정(2008). 고등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지각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청소년연구**, 19(3), 85-114.
- 황혜연·이선영·권순구·봉미미(2016). 남자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정서적 지원, 성취압력과 수학 학습동기, 학습전략 사용, 학업성취의 관계: 수학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교육문제연구**, 29(3), 1-31.
- Akgun, S., & Ciarrochi, J. (2003). Learned resourcefulness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performance. *Educational Psychology*, 23(3), 287-294.
- Campbell, J. R., & Mandel, F. (1990). Connecting math achievement to parental influence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15(1), 64-74.
- Duncan, G. J., & Brooks-Gunn, J. (2000). Family poverty, welfare reform, and child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1(1), 188-196.
- Kim, E., & Lee, M. (2013). The reciprocal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and academic stress in Korea.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41(9), 1519-1531.
- MacKinnon, D. P. (2008). *Introduction to statistical mediation analysis*. New York, N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Montt, G. (2011). Cross-national differences in educational achievement inequality. *Sociology of Education*, 84(1), 49-68.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kinner, E., Johnson, S., & Snyder, T. (2005). Six dimensions of parenting: A motivational model.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5(2), 175-235.
- Song, J., Bong, M., Lee, K., & Kim, S. I. (2015). Longitudinal investigation into the ro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in adolescents' academic motivation and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7(3), 821-841.
- Zimmer-Gembeck, M. J., Skinner, E. A., Scott, R. A., Ryan, K. M., Hawes, T., Gardner, A. A., & Duffy, A. L. (2023). Parental support and adolescents' coping with academic stressors: A longitudinal study of parents' influence beyond academic pressure and achieve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52, 2464-2479.

Abstract

A Longitudinal Study on the Relationships among Parental Emotional Support,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Achievement Using a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Kang, Chaihyun* · Jang, Jaehong**

This study examines longitudinal relationships among parental emotional support,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achievement using a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arental emotional support and academic achievement declined over time, while academic stress increased. Higher initial parental emotional support predicted a steeper decline, higher initial academic stress predicted a more gradual increase, and higher initial academic achievement predicted a steeper decline. Second, higher initial parental emotional support was related to lower academic stress, and increases in parental emotional support slowed the increase in academic stress. Higher academic stress was related to higher initial academic achievement, and increases in academic stress were associated with a relatively greater rate of change in academic achievement. Higher parental emotional support was also related to higher initial academic achievement. Third, academic stress significant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emotional support and academic achievement only at the initial level. No significant longitudinal mediation was found.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need to expand parental emotional support and reconsider the meaning of academic stress.

Keywords: parental emotional support, academic stress, academic achievement,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 Master's graduate, Department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